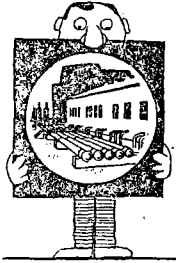


業體 · 品目

# 諸部門에 大企業 기틀 굳혀



朴 毅

(産業經濟新聞社)

##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등장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은, 62년부터 시작한 第 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이어 67년부터의 2次 5 個年計劃事業이 수행되어 오면서 그 發展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새로운 成長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農畜業에 대한 政府의 각종 育成施策과 水産業의 振興은 食品加工業에 대해 原料供給을 원활케 하여 주었고, 所得이 향상된 國民들은 食生活를 점차 개선해가며 消費市場을 넓혀주어 왔다.

生活水準의 향상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띠는 加工食品을 더욱 高級化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기호품으로의 食品개발을 크게 자극했었다.

지난 50년대의 태동기를 거쳐 60년대를 통

하여 성숙되어온 국내 食品工業은 이제 業種도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고 製品도 多樣化되었다.

食品工業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業體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쟁속에서 製品의 질도 더욱 향상되어 市場영역도 內國시장에서부터 海外市場으로 크게 진출하게끔 이르렀다.

우리의 食品메이커들은 後進型食生活構造를 크게 탈피치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영양과 위생적 식품을 공급해오며 성장을 거듭, 이제 食品加工의 諸部門에 거쳐 大規模의 經濟를 이룰 수 있는 大企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 食品工業界는 영세한 메이커들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食品衛生당국인 保健社會部가 조사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 68년의 전국 食品加工 및 製造業體 수는 26,804개 소였던 것이 69년에는

29,682개 소로 늘어났고 70년에는 32,880개 소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72년에는 13,390개 소로 무려 19,490개 소가 줄어들었다. 이같이 食品메이커가 대폭줄어들었던 원인은 대기업의 저렴 또 우량한 제품에 짓눌린 中小업체들이 적지않게 도산을 하게 되는 한편 食品製造加工에 대한 基準의 강화와 감독기능이 철저히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麵類製造業所 크게 增加

業種別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麵類제조업소는 68년의 805개소에서 1,626개 소로(73년 5월 말 현재)로 2배가 늘어났고, 통조림 및 병조림제조업소는 68년 95개소에서 116개 소로, 清涼飲料는 287개소에서 76개 소로 크게 줄어드는 등 부분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水菓제조업소는 68년의 109개소에서 928개 소로, 엿류제조업소는 572개소에서 261개 소로 두부류제조업소는 1,005개소에서 1,492개 소로 菓子類제조업소는 2,613개소에서 3,332개 소로 醬油제조업소는 295개소에서 170개 소로, 칩가물제조업소는 83개소에서 95개 소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食品工業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食品工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 製 糖

53년 11월부터 移動을 시작한 第一製糖은 국내 최대의 施設을 보유, 50% 가까운 市場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55년 12월에 가동하기 시작한 三養社가 뒤따르고 56년 7월부터 제품을 내기

시작한 大韓製糖, 이렇게 3개업체가 현재 국내의 설탕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69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 뒤늦게 製糖業에 손을댄 東立産業은 현재 運轉資金의 부족으로 설탕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製糖업체의 生産能力을 살펴보면 第一製糖이 17만2천5백톤 三養社가 10만톤 大韓製糖이 3만톤 釜山製糖이 6천톤 그리고 東立産業이 7만4천4백톤으로 총 생산능력은 38만2천9백톤에 달하고 있다.

설탕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必須品이 되었고 加工食品의 원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製糖業은 최근에 들어 輸出상품으로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原料를 전적으로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製糖業의 발전이 어느정도 한계성을 띠고 있다.

최근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있는 국제原糖價格은 더한층 製糖業을 위축시키고 있다.

### ◇ 醬 油

醬油제조업의 역사는 꽤 오래되어 해방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된장·간장·고추장등을 생산하는 醬油업체들은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재래식 家庭醬油를 대체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醬油類생산공장은 아직 지극히 영세한 규모에 머물고있는 실정이다.

保社部가 집계한 72년말 현재의 전국 醬油업체는 총 170개社에 달하고 있다. 68년에는 295개社에서 69년 344개社 70년 431개社로 늘어났으나 이러한 업체의 난립은 시장질서만을 혼란시키고 과당경쟁만을 높여 도산업체가 속출했다.

이리하여 71년에는 1백92개社로 대폭 늘어 들게 되었고 72년에 들어서도 도산하는 영세 업체가 속출했다.

반면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製造技術을 향상시켜온 대기업이 공급량을 더욱 늘리고 있다. 국내 醬油업계의 선발업체로서 또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온 대표적 업체는 샘표食品. 이 회사는 이제 이웃 日本의 일류메이커들과 비견할만큼 施設을 현대화하고 있다.

또 대형시설을 가진 三養穀産이 오는 9월부터 부평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콩고간장 영화장유 시온산업등과 같이 醬油類에 대한 品質改善은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 ◇ 製 饜

小麥粉이 주원료인 饜類는 국민의 食生活改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政府에서도 粉食을 장려하고 있고 粉食類에 대한 일반의 需要도 급증하고 있어 製饜업은 크게 각광을 받고있다.

그러나 食品工業에 있어 생명인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대규모 工場이 등장한 것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다.

製饜工業을 家內工業 단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三立食品과 서울食品의 大회사로 손꼽을 수 있다.

대량생산의 잇점을 살려 우수한 製品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자 그에따라 需要도 크게 개발되었고 이에 힘입어 신규메이커가 작년에 또 등장했다.

국내 饜市場을 석권하고있는 주요 업체들은 三立食品을 비롯해서 서울食品, 콘티넨탈食品, 釜山三立食品, 춘천의 榮一食品, 광주의 九本食品, 부산의 삼우食品, 광주단지내의 인터내셔널食品 등이다.

이러한 大메이커의 製饜技術향상과 끊임없는 신규제품개발로 製饜업계는 食生活改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타의 業種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製饜업이 이토록 발전을 하게된것은 관련업종인 製粉業, 製糖業을 비롯해서 製油業, 紙類業, 印刷業등이 발전되어 이를 뒷받침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 ◇ 清凉飲料

사이다, 오렌지쥬스와 콜라등 기호식품인 清凉飲料는 이미 해방전부터 생산해오기 시작한 七星飲料에 의해 주도 되어왔다.

清凉飲料는 비위생적으로 제조할경우 그 施設費用이 크지않다. 그리하여 우후죽순식으로 난립되었던 업체들이 지난 68년에는 무려 287개社에 달했었다.

이당시만해도不良 제품이 많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68년 4월이후 세계적인 清凉飲料인 코카콜라와 펠시콜라가 국내에 등장하게 됨으로서 이 業界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수한 제품에 늘린 영세업체의 상품이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고 또 중소기업체들의 合併작업에 의해 69년에는 전국의 업체수가 전년보다 34개 줄어들었고 70년에는 다시 149업체가 그리고 72년에 들어서는 71개社로 대폭 정리되었다.

현재 국내의 주요 清凉飲料제조업체로는 漢陽食品을 비롯하여 七星과 韓美가 합병한 七星韓美, 71년 4월에 가동한 우성식품 72년 6월에 등장한 호남식품 이어 동년 8월에 설립된 동남식품등이 있고, 東亞製藥도 계약업체로서는 유일하게 清凉飲料를 내놓고 있다.

경남지방 9개社가 합병한 慶南飲料와 부산지방의 合併회사인 合同飲料도 주요메이커로

등장 業界발전에 일익을 맡고있다.

### ◇ 麵 類

麵類제조업은 家內工業에서부터 대규모 工場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68년 805개 업체에 이르던 업소가 69년에는 1,104개소로 70년에는 1,306개소로 늘어났다  
71년에는 1,272개소로 다소 감소되었고 72년에는 1,626개업소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麵類업소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것은 역시 政府의 粉食장려시책에 힘입어 麵類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麵類는 量産체제로 크게 성공시킨 食品은 라면을 들수있다. 라면은 粉食의 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 食生活에 전히 생소했던 라면은 이제 저지않은 소비인구를 포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최초로 등장한 라면메이커는 三養食品이었다. 63년 三養라면이 첫선을 보인 이후 라면이 인기품목으로 등장하게되자 8개월 후에는 롯데工業이 라면을 생산하게되었고 이어 新韓製粉을 비롯한 군소 업체가 라면 제조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그러나 三養과 롯데를 제외한 기타 업체들은 이들 2개업체에 눌리어 대부분이 문을 닫고 말았다.

라면을 위시해 소고기 닭고기등을 부자제로 각종 제품을 개발, 라면類는 이제 가장 주요한 食品業體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澱 粉

澱粉제조업은 고구마를 원료로하는 고구마澱粉業과 옥수수를 원료로하는 옥수수澱粉業으로 나누어진다.

고구마澱粉은 국내의 농산품인 고구마를 사 용하나 시설비용이 비교적 적어 상당히 그 발전은 순탄했다. 더구나 65년부터는 정부의 육성시책에 따라 65년에 10개 공장이 신규로 설립되었고 66년엔 16개공장이 완공되는 한편 20개 공장이 보수를 하였고 67년에는 1개공장이 또 완공을 보는데 증설붐을 이루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3개社가 있으며 이중 77개社는 고구마생산이 많은 제주도에서 집중되어 있다.

한편 생산설비에 投資규모가 큰 옥수수澱粉공장은 天一穀産을 비롯하여 味元 金星산업 풍진화학, 第一製糖등이 있으며 鮮一포도당과 新韓製粉도 옥수수澱粉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다.

국내산 고구마의 구입가격 앙등에 고구마澱粉의 공급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최근에 들어 옥수수澱粉으로의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原料를 대부분 外産에 의존하고있는 옥수수澱粉메이커들이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原料의 輸入代替를 피하던가 또는 儲蓄制를 마련할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국제옥수수의 격앙등은 이러한 문제를 또다시 제기시키고 있다.

### ◇ 製 油

우리나라 製油공업의 주축을 이루는것은 植物性油脂공업으로서 1백개에 가까운 업체중 대규모시설을 갖춘곳은 東邦油糧, 三養油業, 三岡産業, 서울食品 등으로 몇몇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油脂의 국내원료부족으로 인한 원료확보난 및 同원료가격의 불안정성이 製油시설의 가동율을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다.